

# 저소득층의 치매노인 그룹홈 계획에 대한 요구\*

## Needs for the Planning of Group Homes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of Lower Income Classes\*

서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대년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 전공

교수 최정신

건국대학교 소비자·주거학 전공

부교수 권오정

Department of Architecture, Seowon University

*Professor : Dae Nyun Kim*

Major in Consumer & Housing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Professor : Jung Shin Choi*

Major in Consumer & Housing Studies, Konkuk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Oh-Jung Kwon*

### ◀ 목 차 ▶

I. 연구 배경과 목적

IV. 결론과 제언

II. 연구 방법과 내용

참고문헌

III. 연구 결과와 논의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needs for the planning of group homes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in lower income class, who have more economic burden on the caring the demented aged. The survey was conducted by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300 respondents from December 2000 to March 2001. Methods of analysis were frequency distribution, mean and chi-square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respondents perceived that the responsibility to take care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belonged to their family, not to society or the government, and the sons and

\* 본 연구는 2001년도 서원대학교 응용과학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daughters had to share the burden placed on care-givers. 2) The awareness of group homes for dementia was relatively low. 3) The respondents' needs for the group homes with dementia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small scale plan with homelike atmosphere, a total of 6-8 residents, structural type of detached house or three-storied town house, 2-3 persons per individual room, and management system by non-profit organization or the government. There were no big differences between the respondents of this study and upper and middle class studies conducted by other research, except for some details.

Referring to results of this study, it is asserted that group homes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would be embraced throughout the country if political assistance combined with economic support were provided.

**주제어(Key Words):** 치매노인(elderly with dementia), 그룹홈에 대한 요구(needs for group homes), 저소득층(lower income class)

## I. 연구 배경과 목적

뇌와 신경계통에 손상을 입어서 치매(dementia) 상태가 되면 욕구충족 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자신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치매 인구는 1800만 명이며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25년 후에는 3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Nori Graham, 2000). 미국과 유럽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5%, 80세 이상의 20%, 90세 이상의 35-40%가 치매증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연령 증가에 따라 치매유병률이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사실(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8)을 알 수 있다. 국민 수명이 점차 높아져 2000년을 기점으로 고령화사회(65세 이상 7.0% 이상)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83%(21만 8천명)가 치매라고 추정되고 있으며, 고령사회(65세 이상 14.0% 이상)가 되는 2020년에는 9.0%(61만 9천명)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변용찬, 1997). 이와 같은 치매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치료법이 개발되지 못한 까닭으로 치매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더구나, 노인복지정책이 대단히 미흡한 우리나라에서는 치매노인의 보호와 감독을 가족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스트레스는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최정신 외, 2000).

치매에 대한 논의가 의료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물리적 환경이 치매의 진

전을 막고 치매노인의 잔존 능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Brawley, 1997; Cohen 외, 1995)와 함께 치매노인의 거주환경과 관련된 연구(권오정, 1996, 1999; 김영민, 1996; Kwon et al., 2000; 김대년 외, 2000; 오은진 외 2000; 최정신 외, 2000; 권오정 외, 2000; 조영행: 2001, 한경희 외, 2001)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치매와 관련된 각종 모임과 세미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치매노인의 거주환경 대안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치매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거주환경의 영향을 받으므로 기존 환경의 개선 또는 적절한 환경의 제공을 통해서 문제행동을 줄이고 치매노인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치매노인의 속박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환경에서 일반 가정과 같은 생활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주환경이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치매 연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받는 고령국가인 스웨덴에서는 1992년 이후 치매노인을 각종 노인 시설 또는 일반 가정에서 보호하던 종래의 정책을 바꾸어 치매노인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룹홈(group home)은 그러한 대안 중의 하나이다. 치매노인 그룹홈은 방향감각의 상실과 무작정 배회하는 치매노인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일반 가정과 같이 친근감 있는 분위기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6-8명의 치매노인들이 욕실이 딸린 개별 방에서 거주하면서 상주 직원들로부터 급식, 가사, 생활기능 회복,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또 가족이나 친지의 방문이 자유로워서 일반가정보다는 규모가 큰 공동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공동부엌에서 함께 조리하고 식사할 수 있다(최정신 외, 2000). 치매노인 그룹홈의 중요한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일반 노인시설과 같은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공간 안에서 인지기능에 손상이 있는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생활함으로써 정체성, 안전성, 자신감을 추구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노인들이 살던 지역에 계획함으로써 친숙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원하는 노인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가족이나 친척, 이웃의 방문을 유도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을 도와 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계획된 스웨덴의 그룹홈 사례에는 1950년대에 지어진 낡은 소형 아파트를 통합시켜 그룹홈으로 개조한 악셀 달스트룀스 토리 그룹홈(Axel Dahlströms Torg Group Home: 1990년 개원), 고창을 통해 자연채광을 유입시킨 공동거실이 있는 보겐 그룹홈(Bågen Group Home: 1992년 개원), 농촌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린 생태학적 개념의 비스앵아 그룹홈(Vig Ångar Group Home: 1995년 개원), 노인용 코하우징과 인접배치시켜 부부 중 한 사람이 치매에 걸린 경우에도 수시로 만날 수 있게 계획한 샤프테넨 그룹홈(Kaptenen Group Home: 1994년 개원) 등이 있다(김대년 외, 2000).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일부 운영되고 있는 치매노인 그룹홈의 대부분이 국민층인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운영주체는 국가이고 이용료는 무료이다. 이러한 그룹홈은 규모, 거주인원, 직원, 개별 방의 사용인원 등에서 외국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개인 또는 민간기업이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치매노인 그룹홈이 적게 있기는 하나 아직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권오정, 1997). 치매노인 그룹홈에 대한 연구는 치매관련 종사자(권오정 외, 2000), 치매노인 주부양자(최정신 외, 2000)를 대상으로 진행된 바 있는데 이들 대상자들은 치매노인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치매노인 그룹홈에 대한 인지율이 30% 미만으로 낮았으나, 국가보조 확대, 서비스의 질 향상, 개별 방의 사용인원수 조절, 기본이용료의 차등부담제 적용 등이 해결될 것을 전제로 하여 그룹홈의 개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준 바 있다. 이외에도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노인 그룹홈의 개발가능성과 관련 정책(최정신 외, 2001)이나 치매노인 그룹홈의 장점과 국내 도입의 문제점(김대년 외, 2001)을 다룬 연구가 있다.

치매노인 그룹홈에 대한 사회분위기를 보면, 수적으로는 많지 않으나 민간기업 및 종교단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치매노인을 위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주거대안을 심도있게 모색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치매노인을 위한 주거 대안 및 그 개념을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폭넓게 진행시킴으로써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매노인 부양과 비용부담을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가족 중에 치매노인이 생기는 경우 소득이 낮아서 그 고통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치매노인 그룹홈 계획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와 비교됨으로써 소득계층에 따른 요구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치매관련 종사자와 노인복지정책 입안자에게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실버산업에 관심 있는 민간기업이 치매노인 그룹홈에 대한 개발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가 치매노인 그룹홈의 확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은 물론 이들의 부양에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고 이에 따라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복지사회의 구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II. 연구 방법과 내용

치매노인 그룹홈 계획에 대한 저소득층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의 방법은 실증조사로서 자료 수집은 2000년 12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우선, 서울,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에 소재하는 4년제 대학교를 임의로 10개 선정하여 재학생 10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지의 응답자는 대학생이 아닌 중년층이 되도록 권장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921부이었다. 누락기재된 항목이 많거나 부실기재된 44부를 제외시킨 877부를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중산층 이상(200만원 이상)과 저소득층(199만원 이하)으로 구분한 결과 각각 577부와 300부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자료(199만원 이하)로 이용된 설문지는 300부이며, 자료 분석에는 SPSS Win 프로그램을 이용한 빈도, 백분율, 평균,  $\chi^2$ -검증이 이용되었다.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연구의 후속 연구적 성격을 지니는 본 연구의 구체적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치매노인의 부양 및 거주환경에 대한 인식, 치매노인 그룹홈의 공간계획에 대한 요구, 그룹홈의 기본이용료 및 운영주체에 대한 요구,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을 밝히는 것이다. 치매노인 그룹홈의 공간계획에 대한 요구는 소규모 단위 계획에 대한 요구, 적정 거주인원에 대한 요구, 바람직한 건물유형에 대한 요구, 개별 방의 사용인원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 III. 연구 결과와 논의

###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월평균소득을 199만원 이하로 통제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을 보면, 여자가 66.0%로 남자(34.0%)보다 많았다. 연령은 41-50세(33.4%), 31-40세(26.7%), 51세 이상과 30세 이하(각각 19.9%)의

순이며 평균 연령은 40.9세이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7.7%로 가장 많고 대학졸업 이상이 37.3%, 중졸 이하가 15.0%이었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38.3%로 가장 많고 다음은 회사원/공무원(21.1%), 판매업/서비스업(14.4%), 전문직(11.1%), 기타(10.1%), 무직(5.0%)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은 집합주택(67.2%)이 단독주택(32.8%)보다 많았고, 주택규모는 35평 이하가 84.1%(36평 이상 15.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산층 이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비교해 볼 때 월평균소득, 학력, 주택규모에서 큰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구체적인 내용은 Choi et al., 2002 참조 가능).

### 2. 치매노인 부양 및 거주환경에 대한 인식

치매노인 부양 및 거주환경에 대한 인식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치매노인 부양경험을 보면, 과거 또는 현재에 직접 부양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2.2%이고, 직접 부양한 경험은 없으나 친척·친지 중에 치매노인이 있는 경우가 13.5%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26% 정도가 치매노인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치매노인 부양의 일차적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74.3%로서 사회 또는 국가라고 인식하는 경우(21.3%)의 3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는 중산층 이상의 비율 85.4%(Choi et al., 2001)에 비해서 11% 정도 낮은 것인데 이러한 차이는 저소득층이라는 상황이 부양부담을 가중시킨 결과라고 해석된다.

배우자가 없는 치매노인의 부양에 대해서는 형편되는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58.6%)고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은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부양해야 한다(27.9%), 큰아들 내외가 부양해야 한다(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치매노인 부양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은 모든 자녀들의 분담(67.4%)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형편되는 자녀의 부담(24.8%), 아들들의 분담(4.0%), 큰아들의 부담(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양비용에

〈표 1〉 치매노인 부양 및 거주환경에 대한 인식

부양 및 거주환경에 대한 인식		N (%)	
치매노인 부양경험	부양경험이 있다	36 (12.2)	
	부양경험은 없으나 친척·친지 중에 치매노인이 있다	40 (13.5)	
	부양경험이 없다	220 (74.3)	
	계	296(100.0)	
치매노인 부양의 일차적 책임	가족	76 (25.7)	
	사회 또는 국가	220 (74.3)	
	계	296(100.0)	
치매노인의 부양책임	자녀가 돌아가면서 부양해야 한다	83 (27.9)	
	큰아들이 부양해야 한다	40 (13.5)	
	형편 되는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	174 (58.6)	
	계	297(100.0)	
치매노인 부양비용	자녀가 골고루 부담해야 한다	201 (67.4)	
	큰아들이 부담해야 한다	11 ( 3.7)	
	아들이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	12 ( 4.0)	
	형편되는 자녀가 부담해야 한다	74 (24.8)	
	계	298(100.0)	
치매노인에게 바람직한 거주환경	일반인 (사회적 차원)	일반가정	20 ( 6.8)
		일반 양로·노인시설	10 ( 3.4)
		소규모 치매노인 전문시설	161 (54.4)
		대규모 치매노인 전문시설	105 (35.5)
	계	296(100.0)	
	부모 (가족적 차원)	일반가정	62 (20.7)
		일반 양로·노인시설	7 ( 2.3)
		소규모 치매노인 전문시설	147 (49.2)
		대규모 치매노인 전문시설	83 (27.8)
	계	299(100.0)	
	본인 (개인적 차원)	일반가정	31 (10.5)
		일반 양로·노인시설	9 ( 3.0)
소규모 치매노인 전문시설		176 (59.5)	
대규모 치매노인 전문시설		80 (27.0)	
계	296(100.0)		
치매노인을 위한 거주환경 개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21 ( 7.0)	
	도움이 될 것이다	245 (82.2)	
	모르겠다	32 (10.7)	
	계	298(100.0)	
거주환경 개조 비용 부담의사	부담할 의사가 있다	158 (53.4)	
	부담할 의사가 없다	15 ( 5.1)	
	개조보다는 전문시설을 이용하겠다	123 (41.6)	
	계	296(100.0)	

대한 자녀분담 인식이 매우 높다는 결과에서 아들 딸을 구분하지 않으려는 인식은 치매노인의 실제적 부양보다는 비용부담에서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저소득층은 부양비용의 자녀분담 인식(67.4%)이 중산층 이상(73.7%)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 형편되는 자녀가 부담해야 한다(24.8%)는 인식이 중산층 이상(17.6%)에 비해서 높은데 이러한 차이도 역시 소득에 의한 차이라고 판단된다.

바람직한 거주환경에 대한 인식을 3가지 차원, 즉 사회적 차원(일반인: 나와 관계가 없는 일반인이 치매인 경우에 가장 적합한 거주환경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가족적 차원(부모), 개인적 차원(본인)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표 1〉 참조), 그 정도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소규모 치매노인 전문시설(49.2-59.5%)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규모 치매노인 전문시설(27.0-35.5%), 일반가정(6.8-20.7%), 일반 양로·노인시설(2.3-3.4%)의 순서로 밝혀졌다.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이유는 유교적 문화가 근간을 이루는 우리 사회에서는 치매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바람직한 거주환경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는데, 결과는 예측한 대로 나타났다. 즉, 치매노인에게 바람직한 거주환경을 일반가정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을 보면, 부모인 경우는 20.7%인 반면에, 본인은 10.5%, 일반인은 6.8%라고 응답함으로써 치매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부모: 11.9%, 본인: 7.5%, 일반인: 7.2%)와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 중산층 이상에 비해서 일반가정을 더 선호하며, 특히 본인이나 일반인보다는 자기 부모인 경우에 2배 정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소규모 치매노인 전문시설을 바람직한 거주환경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본인인 경우는 59.5%이었으나 일반인은 54.4%, 부모는 49.2%를 나타냄으로써 치매당사자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부모보다 본인인 경우에 소규모 치매노인 전문시설을 더 바람직하게 인식한다는 결과는 치매노인 그룹홈에 대한

미래의 수요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다.

주거환경의 개선이 치매노인의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82.2%가 긍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물리적 환경이 치매노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치매노인의 부양을 위해서 주택개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반응이 53.4%로 높은 반면에 부정적인 반응이 5.1%로 나타남으로써 치매노인을 부양하게 될 상황이 되면 주거환경 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의 41.6%가 주택개조 비용을 부담하기보다는 치매노인 전문시설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함으로써 일반가정보다는 치매노인을 위해서 계획된 별도의 거주환경을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노인이 되는 가까운 미래에 대비하여 대규모 치매노인 전문시설이나 일반 양로·노인시설보다는 소규모 치매노인 전문시설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안으로서 치매노인 그룹홈에 대한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시한 치매10년 정책(1996년 1월-2005년 12월)에는 1개소 당 100명을 수용기준으로 치매전문 요양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는 물론, 스웨덴 등의 고령국가에서 대규모 노인시설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10년 전부터 폐쇄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치되는 것이다. 치매노인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노인시설이 치매노인을 수용하기 위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스웨덴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우(遇)를 범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행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 3. 치매노인 그룹홈의 인지도

치매노인 그룹홈의 인지도와 이에 대한 관련변인별 차이를 알아 본 결과,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25.4%가 치매노인 그룹홈에 대하여 들어보았거나 알고 있었으며, 74.6%가 몰랐다고

〈표 2〉 치매노인 그룹홈의 인지도와 관련변인별 차이<sup>a</sup>

변 인		치매노인 그룹홈에 대한 인지				
		몰랐다	알고 있었다	계	$\chi^2$	
연 령	30세 이하	51(86.4)	8(13.6)	59(100.0)	9.33*	
	31세 ~ 40세	56(71.8)	22(28.2)	78(100.0)		
	41세 ~ 50세	76(76.8)	23(23.2)	99(100.0)		
	51세 이상	37(62.7)	22(37.3)	59(100.0)		
	계	220(74.6)	75(25.4)	295(100.0)		
주택 규모	35평 이하	188(78.0)	53(22.0)	241(100.0)	6.09*	
	36평 이상	28(60.9)	18(39.1)	46(100.0)		
	계	216(75.3)	71(24.7)	287(100.0)		
바람직한 거주환경	본인 (개인적 차원)	일반가정	28(90.3)	3( 9.7)	31(100.0)	10.26*
		일반 양로·노인시설	4(44.4)	5(55.6)	9(100.0)	
		소규모 치매노인 전문시설	125(71.8)	49(28.2)	174(100.0)	
		대규모 치매노인 전문시설	63(79.7)	16(20.3)	79(100.0)	
		계	220(75.1)	73(24.9)	293(100.0)	

\*p&lt;.05 \*\*p&lt;.01 \*\*\*p&lt;.001

<sup>a</sup>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만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임

응답함으로써 인지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산층 이상의 인지도 29.3%(Choi et al, 2001)보다 약간 낮은 편이다. 저소득층과 중산층 이상의 경우의 인지도가 모두 30% 미만이라는 사실은 치매노인 그룹홈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치매노인 그룹홈에 대한 인지도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는 변인은 연령, 주택규모, 바람직한 거주환경(본인)에 대한 인식이었다(세 변인의 유의도:  $p < .05$ ). 연령에 의한 차이를 보면, 51세 이상은 인지도가 37.3%로 전체 평균(25.4%)에 비해서 높은 반면에, 30세 이하는 13.6%로 매우 낮았는데, 이는 나이가 들면서 치매에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주택규모에 의한 차이를 보면, 36평 이상(39.1%)은 인지도가 평균보다 높고 35평 이하(22.0%)는 낮았다. 또, 치매노인에게 바람직한 거주환경(본인)을 일반가정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의 인지도가 9.7%로서 일반 양로·노인시설(55.6%), 소규모 치매노인 전문시설(28.2%)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 4. 소규모 단위 계획에 대한 요구

치매노인 그룹홈의 공간계획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4가지 항목, 즉 소규모 단위 계획에 대한 요구, 적정 거주인원에 대한 요구, 건물유형에 대한 요구, 개별 방의 사용인원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치매노인 그룹홈의 소규모 단위 계획에 대한 요구를 보면, 82.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에 부정적인 반응은 3.0%로 매우 적었으며, 14.4%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산층 이상의 84%(Choi et al, 2001), 치매관련 종사자의 90% 이상(Oh-Jung Kwon et al, 2000)이 소규모 단위 계획을 적절하다고 인식한다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하다. 이와 같이 치매노인시설을 소규모 단위로 계획하는 것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치매10개년대책으로 1개소당 100명을 수용기준으로 하는 대규모 치매전문요양시설을 확충하려는 계획(한국치매가족회, 2000)을 세우고 있어서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소규모 단위 계획에 대한 관련변인별 차이는 〈표

〈표 3〉 소규모 단위 계획에 대한 요구와 관련변인별 차이<sup>b</sup>

변 인		소규모 단위 계획				$\chi^2$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다	잘 모르겠다	계	
성 별	남 자	6( 5.9)	77(75.5)	19(18.6)	102(100.0)	7.13*
	여 자	3( 1.5)	170(86.3)	24(12.2)	197(100.0)	
	계	9( 3.0)	247(82.6)	43(14.4)	299(100.0)	

\*p&lt;.05 \*\*p&lt;.01 \*\*\*p&lt;.001

<sup>b</sup>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만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임.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에서만 발견되었다. 즉, 소규모 단위 계획에 대하여 여자(86.3%)는 평균(82.6%)보다 높게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반면에 남자(75.5%)는 바람직하다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 5. 적정 거주인원에 대한 요구

치매노인 그룹홈의 적정 거주인원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스웨덴 치매노인 그룹홈의 거주인원인 6-8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적당하다(64.0%)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많다(19.7%), 잘 모르겠다(11.7%), 적다(4.7%)의 순서였다(〈표 4〉 참조). 이는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적당하다: 69.0%, 많다: 17.1%, 잘 모르겠다: 9.9%, 적다: 4.0%)와 유사하여 적정 거주인원에 대한 요구는 소득과는 큰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은 6-8명이 많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17% 이상(저소득층: 19.7%, 중산층 이상: 17.1%)이라는 것이다. 스웨덴 치매노인 그룹홈에는 대부분 6-8명이 거주하고 일본은 8-16명이 거주한다는 사실(최정신 외, 2001)을 감안한다면 의외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앞으로 언급될 개별 방의 사용인원에 대한 요구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룹홈 당 거주인원을 개인의 프라이버시 유지나 공간 과밀의 차원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부양 부담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표 4〉 적정 거주인원에 대한 요구와 관련변인별 차이<sup>c</sup>

변 인		거주인원 6-8 명				계	$\chi^2$
		적다	적당하다	많다	모르겠다		
성 별	남 자	3( 2.9)	74(72.5)	12(11.8)	13(12.7)	102(100.0)	7.81*
	여 자	11( 5.6)	118(59.6)	47(23.7)	22(11.1)	198(100.0)	
	계	14( 4.7)	192(64.0)	59(19.7)	35(11.7)	300(100.0)	
치매노인 부양경험	부양경험이 있다	8(22.2)	14(38.9)	8(22.2)	6(16.7)	36(100.0)	38.37***
	부양경험은 없으나 친척· 친지 중에 치매노인이 있다	2( 5.0)	21(52.5)	9(22.5)	8(20.0)	40(100.0)	
	부양경험이 없다	4( 1.8)	155(70.5)	42(19.1)	19( 8.6)	220(100.0)	
	계	14( 4.7)	190(64.2)	59(19.9)	33(11.1)	296(100.0)	
치매노인 부양책임	자녀가 돌아가면서	3( 3.6)	59(71.1)	16(19.3)	5( 6.0)	83(100.0)	12.88**
	큰 아들	3( 7.5)	18(45.0)	14(35.0)	5(12.5)	40(100.0)	
	형편되는 자녀	6( 3.4)	115(66.1)	29(16.7)	24(13.8)	174(100.0)	
	계	12( 4.0)	192(64.6)	59(19.9)	34(11.4)	297(100.0)	

\*p&lt;.05 \*\*p&lt;.01 \*\*\*p&lt;.001

<sup>c</sup>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만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최정신 외, 2000)로 치매노인 주부양자 중에는 거주인원 6-8명이 많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23.7%로 일반인보다 높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적정 거주인원에 대한 요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 치매노인 부양경험,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으로 밝혀졌다. 성별에 의한 차이를 보면, 6-8명이 적당하다는 비율이 남자(72.5%)는 평균(64.0%)보다 높았으며, 많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여자(23.7%)가 평균(19.7%)보다 높았다. 또, 치매노인 부양경험이 있거나 가족·친지 중에 치매노인이 있는 경우에는 6-8명이 많다는 비율이 평균(19.9%)보다 높았으며, 부양책임이 큰아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6-8명이 많다는 비율(35.0%)이 평균(19.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6. 건물의 유형에 대한 요구

치매노인 그룹홈의 건물유형에 대한 요구(<표 5> 참조)를 보면, 단독주택 유형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64.4%)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3층 연립주택(30.5%), 5층 아파트(5.1%)의 순서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 항목에서 고층 아파트를 제외시켰는데 그 이유는 치매관련 종사자, 치매노인 부양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 연구에서 고층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극히 적은 것(0-1%)으로 밝혀졌

<표 5> 건물의 유형과 개별 방 사용인원에 대한 요구

건물 유형과 개별 방의 사용인원		N (%)
바람직한 건물유형	단독주택	190( 64.4)
	3층 정도의 연립주택	90( 30.5)
	5층 정도의 아파트	15( 5.1)
	계	295(100.0)
개별 방의 사용 인원	1 명	21( 7.0)
	2~3 명	239( 79.9)
	4~5 명	27( 9.0)
	6 명 이상	12( 4.0)
	계	299(100.0)

기 때문이었다.

치매노인 그룹홈의 건물유형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는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매우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치매노인 그룹홈 계획에서 건물의 층수에 대한 이견(異見)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될 치매노인 그룹홈은 단독주택으로 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만 차선택으로 3층 연립주택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치매노인 그룹홈을 단독주택 유형으로 하고 6-8명 정도 거주하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7. 개별 방의 사용인원에 대한 요구

개별 방의 사용인원에 대한 요구(<표 5> 참조)를 보면, 2-3명이 적당하다는 비율이 79.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4-5명은 9.0%, 1명은 7.0%, 6명 이상은 4.0%로 매우 적었다. 이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중산층 이상과는 매우 유사하나, 치매관련 종사자 또는 치매노인 주부양자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여 주었다. 즉, 개별 방을 치매노인 1명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치매관련 종사자의 경우는 18%(권오정 외, 2000),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경우는 16%(최정신 외, 2000)가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는데 이는 중산층 이상 또는 저소득층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치매노인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치매노인을 직접 부양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여러 명의 치매노인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 판단된다. 개별 방 사용인원에 대한 요구에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 1명이 개별 방을 사용하는 스웨덴이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원인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즉, 가정과 같은 분위기의 치매노인 그룹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까닭으로 방 하나에서 여러 명

이 생활하는 대규모 노인시설과 그룹홈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1인 1실을 당연시하는 외국의 공간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가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 개별 방의 사용인원을 그룹홈 이용료와 관련시켜 응답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월평균소득이 다른 경우(중산층)에도 개별 방 사용인원에 대한 요구가 유사하였다는 사실에서 설명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경우는 주택규모가 작았음에도(21-29평: 37.0%, 20평 미만: 26.5%) 불구하고, 노인이 혼자서 방을 사용하는 비율이 90.2%로 높다(최정신 외, 2000)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개별 방 사용인원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그대로 따르기는 조심스럽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개별 방의 적절한 사용인원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8. 기본이용료와 운영주체에 대한 요구

그룹홈의 기본이용료에 대한 요구를 보면, 100만원이 57.3%로 가장 많고 다음은 150만원이 14.9%로 나타남으로써 72% 이상이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이용료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0만원 이상은 극히 적었으며(2.4%), 기타가 25.7%로 밝혀졌다. 이는 중산층 이상의 경우(최정신 외, 2001)에 100만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고 150만원이 그 다음 순서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룹홈의 운영주체에 대한 요구를 보면, 비영리단체(중고단체·사회복지법인)가 가장 많았으나(46.1%) 다음 순서인 국가(43.4%)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90% 정도가 비영리단체 또는 국가가 치매노인 그룹홈의 운영주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운영주체로서 개인·민간기업을 요구한 비율은 10.4%로 매우 낮게 나타나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가 치매노인 그룹홈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중산층 이상의 경우(비영리단체: 50.6%, 국가:

36.6%, 개인·민간기업: 13.1%)와 비교해 보면(최정신 외, 2001), 저소득층이 중산층 이상에 비해서 국가가 치매노인 그룹홈을 운영할 것을 더 요구하는 반면에 개인·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것을 덜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국가가 운영주체인 경우에 기본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한 것이라 예측된다.

#### IV. 결론과 제언

저소득층의 치매노인 그룹홈 계획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치매노인의 부양 및 거주환경에 대한 인식, 치매노인 그룹홈의 공간계획에 대한 요구, 그룹홈의 기본이용료 및 운영주체에 대한 요구를 밝힌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결론과 제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은 치매노인 부양의 일차적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중산층 이상에 비해서는 낮은 편인데, 이는 낮은 경제력에 기인한 부양비용 부담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 치매노인의 부양은 형편되는 자녀 또는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부양비용은 자녀들이 골고루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로써 장자 부모부양이라는 한국가족의 유교적 가치관이 많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치매노인의 거주환경으로 소규모 치매노인 전문시설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본인보다는 부모의 경우에 일반가정을, 부모보다는 본인의 경우에 소규모 치매노인 전문시설은 더 바람직하게 인식하는 등 치매당사자에 따라서 바람직한 거주환경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본인이 치매인 경우에 소규모 치매노인 전문시설을 더 바람직하게 인식한다는 사실에서 치매노인 그룹홈에 대한 미래의 수요증가를 예측할 수 있다. 또 물리적인 환경이 치매노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고 치매노인의 부양을 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의사가 있으나 개선비용을 부담하기보다는 치매노인 전문시설을 이용하겠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치매노인 그룹홈을 공급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된다.

셋째, 치매노인 그룹홈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저소득층뿐 아니라 치매관련종사자, 치매노인 주부양자,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도 그룹홈의 인지도가 30% 미만이라는 사실은 치매노인 그룹홈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을 위한 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시킨다면 효과적인 것이다. 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모범적인 치매노인 그룹홈을 외부인이 견학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하우스' 제도가 정착화 되도록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소규모 단위로 치매노인 그룹홈을 계획하는 것에 대하여는 본 연구의 대상자인 저소득층뿐 아니라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단기간에 치매노인을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대규모 노인시설을 계획하는 오늘날의 상황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저소득층 역시 선행연구의 조사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치매노인 그룹홈의 적정 거주인원은 6-8명으로 하고, 건물의 유형은 단독주택 또는 3층 연립주택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건물유형에 대한 요구에서 변인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는 그룹홈 계획에서 건물유형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거주인원을 6-8명으로 하고 건물유형을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으로 하기를 바라는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신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도시의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농어촌의 경우에는 폐교(閉校)나 폐가(閉家)를 리모델링하여 치매노인 그룹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폐교의 경우는 주택에 비해서 규모가 클 것이므로 폐교 중 일부 공간을 2-5개의 그룹홈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일반 주민들이나 어린이를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다

고 본다.

여섯째, 개별 방의 사용인원에 대한 요구를 보면, 2-3명을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치매노인의 프라이버시 유지나 인간성 존중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되지만 무엇보다도 기본이용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해석된다. 개별 방의 사용 인원(2-3명)과 그룹홈의 적정 거주인원(6-8명)을 고려하여 그룹홈 당 개별 방을 3-4개 계획하고, 방 당 사용인원은 치매의 정도를 감안하여 1명 또는 2-3명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개인실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러한 계획은 주거과밀 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으나 국가의 지원이 대단히 미흡한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인 방안이라 사료된다.

일곱째, 치매노인 그룹홈의 기본이용료에 대한 요구를 보면, 100만원이 가장 많으나 전체적으로 100만원-150만원에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룹홈 거주 비용보다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 예측된다. 치매노인 그룹홈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치매노인 그룹홈 확산에 가장 큰 문제점을 가족의 경제적 부담으로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한다. 즉, 수혜대상자를 차별화하고, 그룹홈의 운영주체에 따라서 가족의 부담을 달리 책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는 기본이용료를 무료로 하고, 비영리단체는 가족과 국가가 공동부담하는 실비화를, 개인이나 민간기업은 전액을 가족이 부담하는 유료화 운영방식을 추진한다면 수혜자의 부담을 차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라도 치매노인 그룹홈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민간기업에게는 저리용자,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줌으로써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욱 효과적인 방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마다 일정한 수의 치매노인 그룹홈이 운영될 수 있도록 권장 또는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젊은이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이 급변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치매노인의 부양은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유교적 가치관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를 대규모 치매노인시설에 맡기는 행위에 죄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호응을 받으면서 확산되고 있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의 소규모 단위의 주택에서 6-8명 정도의 노인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수시로 가족과 만날 수 있는 치매노인 그룹홈은 우리나라에 정착시키기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치매노인 그룹홈에 대한 홍보와 함께 운영방식의 융통성을 보이면서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치매노인 그룹홈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치매노인 그룹홈 보급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어 한국의 치매노인과 그 부양 가족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권오정(1999). 치매성 노인을 위한 물리적 환경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신진교수연구과제 연구보고서.
- 권오정, 조명희, 김대년, 최정신(2000). 스웨덴 치매노인 그룹홈 모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6(5), 41-49.
- 권중돈(1994). 한국 치매 가족의 부양 부담사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대년, 최정신, 조명희, 권오정(2000). 개발 이념을 중심으로 본 스웨덴의 치매노인용 그룹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6(7), 21-30.
- 김영민(1996). 치매성 노인의 생활장애와 생활공간에 관한 연구. 경도부립대학 석사학위논문.
- 변용찬(1997). 치매노인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 오은진 외 2인(2000). 치매노인의 행동특성과 거주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6(6), 41-50.
- 이성희(1991). 치매노인의 이해와 간호. 현문사.
- 조영행(2001). 도심지역 치매요양소에서의 공간이용 패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7(4), 11-18.
- 최정신, 김대년, 조명희, 권오정(2000). 치매노인을 위한 스웨덴 그룹홈의 우리나라 적용가능성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5), 153-166.
- 한경희, 김대년, 김옥태, 김인숙, 김정숙, 심영, 정은희, 조명희, 최종명, 황태주(2001). 노인성 치매 연구. 교문사.
-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8). 노인 치매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Almberg, C. & Paulsson, J. (1991). *Design intervention towards a more humane architecture*. Van Nostrand Reinhold.
- Brawley, E. C. (1997). *Designing for Alzheimer's disease: strategies for creating better environments*. John Wiley & Sons.
- Calkins, M. P. (1989). *Innovative approaches to designing for the wandering residents*. Provider.
- Cohen, U. & Weisman, G. (1991). *Holding on to hom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Cohen, U. & Day, K. (1993). *Contemporary environments for people with dementia*.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 Nori Graham (2000). *Coping with Alzheimer's disease around the world: 세계는 치매를 어떻게 대처하나*. 한국치매가족회. 9-29.
- Jung Shin Choi, Dae Nyun Kim, & Oh-jung Kwon (2002). Care of the Demented Aged and Needs of the Group Homes for Upper and Middle Class Famil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English Edition*, 2(1), 1-17.
- Kwon, Oh-Jung, Jung Shin Choi, & Dae Nyun Kim (2000). Koreans' Perceptions of Swedish Group Home Model for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Proceedings 3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Architectural Interchanges in Asia*, 302-311.